



가득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 WYD 후기

유동현 마르코
해양사목 사무국장

-
-



올여름 내 생애 두 번째의 세계 젊은이의 날(세계 청년 대회, World Youth Day, 약칭 WYD) 참가이자 첫 봉사자로 포르투갈에 다녀왔다. 2주간의 WYD 국제중앙자원봉사기간 동안 얻은 것은 성모님의 당찬 발걸음이다. 그 당찬 발걸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 또는 자신보다 먼저 겪은 엘리사벳을 찾아간 성모님처럼, 나 또한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들과 함께 기쁨이든 슬픔이든 절망감이든 희망이든 함께 나누기 위해 봉사자이자 순례자로 걸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교종께서 순례 전에 “순례자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거나 찾아가라”는 말씀이었다. 본대회 1주일 전, 봉사자 교육과 봉사자 자질함양 활동의 시간이 있었는데, 젊은이의 날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을 성모님의 그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름하여 “선교적 제스처”. 나는 몇몇 팀원, 리더와 함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머무는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10여 명이 센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중 한국인인 나를 포함한 봉사자 둘은 영어가 가능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며 핑거페인팅으로 캔버스 꾸미기 작업도 함께했다. 나중에 그의 이름과 우리 봉사자들의 이름을 리본에 써서 교환하고 뜻깊은 만남을 새기며 돌아왔다. 유다 산악지방으로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모습과 엘리사벳의 만남이 ‘교회는 항상 선교적’이라고 하신 교종의 말씀과 겹쳐 보였다.

또 하나 가슴에 닿은 모습은 교종과 순례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함께 외친 “교회는 모든 이의 것이다.”라는 외침이었다. 포르투갈어로 “Todos!(모두의 것) Todos! Todos!”를 세 번씩 외치며 나는 울컥했다. 어느 특정인들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 그렇지 못한 현실에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의 젊은 모습에 울컥했다. 어떤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WYD에 모인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느낀 분위기와 감동을 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축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이고 새롭게 젊고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WYD에서 가져온 마음으로 새롭게 일을 한다. 🌱

✝ 이달의 기도 지향 : 바다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류의 회개를 위하여

사목과 정치, 다스림의 미학인 경청과 소통

이균태 안드레아 신부 김해성당 |

‘귀납歸納’과 ‘연역演繹’이라는 단어는 주로 학문의 방법론에서 사용된다. 여러 현상들을 두루 살핀 후, 그 현상들의 공통점이나 상이점을 찾아내고, 범주화시켜서 결과물을 얻는 방식이 귀납이다. 이와는 반대로 연역은 어떤 결과물인 원리를 개별적인 현상들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귀납’과 ‘연역’은 사목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사목과 정치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다스림이다. 연역식의 다스림은 통치자 중심이다. 통치자 혹은 집권 세력이 어떤 원리나 원칙을 공표하게 되면,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경청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언유착政言癒着이나 정언밀월政言蜜月이 그 바탕에 깔리고, 언론장악言論掌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상호 간의 대화는 거의 없다. 대화의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이미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의 시나리오 대본 수준이고, 일방통행만 존재할 뿐이다. 게다가 경청이 통치 대상에게 의무가 되어버리면, 통치자나 집권세력은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두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름표를 덕지덕지 붙여 주기도 한다.

이에 반해 귀납식의 다스림은 피통치자 중심이다. 통치자 혹은 집권 세력이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구조다. 이

러한 구조에서는 상호 간의 견제뿐만 아니라, 대화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동행同行, 혹은 협행協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 시노달리타스 syn-odalitas ≫의 길도 열린다.

가톨릭 교회는 오랜 세월 스콜라 철학과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인 연역식에 따라 교리와 교의를 전개해 왔고,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연역식으로, 곧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5년까지 3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연역에서 귀납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냈다. 특히 ≪ 사목현장Gaudium et spes ≫은 10항까지 현대 세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각 장에서도 역시 귀납적인 방법으로 전개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진리는 교회 안에 특히 교도권자에게 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식이었다면, ≪ 사목현장 ≫에서는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경청하고 이해하였으니, 교회가 생각하는 답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교회의 이러한 변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러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경청한다. 교황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제안을 꺼내기 전에 먼저 세상이, 각 사회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살핀다. ≪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등의 권고와 《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와 《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 등의 회칙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문헌들은 도입부에서 세상의 상황, 현실의 상황을 꾸밈없이 전개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에서 발견되는 진리, 곧 교회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제언을 제시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의 핵심은 경청이며, 경청이 지향하는 것은 소통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청과 소통에 대한 메시지는 교회의 교도권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 혹은 통치세력에게도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중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고, 글귀를 못 알아 먹는다고 푸념을 하거나 투정을 부리는 것은 경청하는 교도권자나 통치자의 태도가 아니다. 교도권자나 통치자가 경청의 자세를 취할 때,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해와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알려주셨고, 그 비유들 끄트머리에는 곧잘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마태 11,15)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으라고 당신의 말씀의 난이도 수준을 낮추셨지만,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들을”이라는 단어를 굳이 삽입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 해놓고는, “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구분 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언가 따로 들을 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바뀌버렸다.

경청과 소통이 원활한 교회를 꿈꾸는 교황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황의 메시지가 실현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래본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 나누는 선물입니다. 편견 없이 주의 깊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면, 친밀함과 연민과 은유로 길러지는 하느님 방식에 따라 말하게 됩니다. 마음에 불을 지피고, 상처에 향유가 되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여정에 빛을 밝히는 소통이 교회 안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화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교회의 소통, 그리고 제삼 천년기에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놀라운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과 수단을 모색할 줄 아는 교회의 소통을 저는 꿈꿉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웃,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소통이며, 자기 자신만이 기준이 되는 정체성이라는 잣더미를 고수하기보다 신앙의 불을 지필 줄 아는 소통입니다. 들을 때의 겸손과 말할 때의 담대함(parrhesia)에 바탕을 둔 소통의 형태는 진리를 사랑에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2023년 제 57차 홍보주일 교황 담화 부분 인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안전성 문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운영위원장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네 번의 폭발이 있었다. 사고의 본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지 않았고 원전 폐로는 100년 이상 걸린다. **오염수를 30년 이상 방류한다지만 실제로는 100년 동안 투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끝나지 않은 사고, 100년 투기 일방적 결정

미국 교수들이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 해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보다 1만 배 높은 세슘이 검출됐다. 최근에는 발전소 근처에서 기준치의 180배 많은 세슘 우레이 나왔다. 2022년 11월 말까지 사고 사망자만 2,335명이고 암 발생자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지하수가 계속 원전 내에 유입돼 오염수 저장 탱크만 1,070개나 되고 이 중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Advanced Processing Liquid System)’를 2013년에 개발했지만 성능의 55% 정도만 정상 작동하는 등 문제가 많다.

오염수 배출 방식도 △지층 투입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 해양 방출 등의 선택지가 있었으나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를 택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이, 어민들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무책임한 IAEA 보고서, 문제투성이

IAEA와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전문가들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나온 IAEA 최종 보고서에는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지만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을 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최종 보고서에 중대 사고 발생 시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정당화 및 최적화가 빠졌다. 정당화는 배출 시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건데 일본 이익만 있을 뿐이고 방사선 촬영도 최소화하는 현실에서 투기된 수산물을 먹게 되는 건 최적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

다른 학자들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배출 이익의 정당성이 없는 점 △배출 방사능 총량 평가가 없고 검증의 객관성이 없는 점 △복잡계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방류만을 위한 기계론적 사고에 갇힌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식량 안보 우려, 데이터도 의문, 비과학적 논거들
국제 전문가들도 우려를 내놓았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방사능을 흡수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다시 해양 생물에 축적되고 사람이 이를 먹게 되는 경우 몸에 흡수되면 세포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방류는 ‘투기’라며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의문투성이라고 밝혔다. 4천 개가 넘는 핵종 중 64개만 조사했고, 7개만 조사 샘플을 제공했다. 바닥 침전물이 아닌 상단의 오염수를 살짝 뜬 것인지, 1,070개 탱크 중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한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다.**

비과학성도 문제이다. 후쿠시마 핵폐수 음용 시 피폭량을 계산하면 조건에 따른 변수가 많아 결과가 수백 배 달라질 수 있는데 무조건 마셔도 괜찮다고만 하는 건 지극히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이다.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과학적 메시지인데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성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민생 아랑곳 않는 한국 정부의 수용, 들끓는 외신과 민심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길을 가고 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겸허히 수용하겠다”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화두로 내세우는 민생 안정을 고려했다면 어민의 생계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일본에 ‘노’라고 했어야 했다.

일본 정부는 5,000억 엔을 들여 반대 어민들을 설득하며 8월 말~9월 초 방류를 준비 중이다.

이에 영국 가디언지는 “최종 보고서가 폐수 방류 반대자들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일본 3개 현 어업협동조합이 3만3천 명 서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제TV 네트워크가 세계 시민 3만4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우려 해결 실패”, 95%가 “일본 행동 무책임”이라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은 해양 투기 반대를 분명히 하며 세계적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선 30만 명(7월 초 기준) 이상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정부 상대 헌법소원 청구와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촛불 시위도 계획 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 174항에서 “규제와 통제가 없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 세계 공공재에 대한 인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합성과 정당성, 최적화를 고려하면 오염수 투기 대신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 투기를 저지할 때까지 전 세계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

2023년 7월 10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유연창 베드로 신부 사회사목국

Salve! 제가 약 1년여 동안 살던 포콜라레 사제 학교에는 13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국적과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한국 2명, 브라질 3명, 마다가스카르, 페루, 카메룬, 짐바브웨, 프랑스, 몰타, 스위스, 이탈리아 신부들이 3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있었습니다.

작년 대림 시기에 나눔을 하면서 그동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길래 “우리는 신혼부부와 같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 몰랐지만, 함께 알아가고 함께 적응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예쁜 말은 했지만, 사실 처음 한 달은 모두가 전쟁이었습니다. 저와 광주교구 신부는 로마에서 몇 달 이탈리아말을 배워서 갔지만 대충 알아듣고 간신히 대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책임자 신부 세 명을 빼고 연수생 신부 9명 가운데 세 명은 이탈리아말에 막힘이 없고, 다섯 명은 이탈리아말을 인사만 아는 상태로 왔습니다. 당장 서로 말부터 안 통하니 난리도 아니었지요.

저는 대부분의 운전을 도맡아 했는데, 미사나 수업, 공장에 일하러 갈 때 늦게 나오는 신부가 꼭 있습니다.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못하는 신부들이 있으니, ‘빨리 나와라’ 또는 ‘혹시 안 갈 거냐’ 같은 짧은 말도 전화로는 소통이 불가능해서 찾으러 방으로 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냥 바벨탑 쌓게 내버려 두셨어도 됐을 텐데!”

문화가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식습관도 다른 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방법도 달랐죠. 밥이나 매운 음식은 물론이고, 소금을 잔뜩 치거나 뜻밖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다가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짜장, 라면, 카레를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한 공동체로 일치의 영성을 살게 되었습니다. 극우 야당과 검찰의 쿠데타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걱정하던 페루 신부, 성당으로 쳐들어온 반군이나 무장 강도를 설득해서 다시 미사에 나오게 했다는 카메룬 신부, 검찰의 공격을 이겨내고 다시 대통령이 된 룰라의 당선 소식에 기뻐하던 브라질 신부들을 보며 사랑과 정의와 공정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한 형제라는 생각도 다시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다양성과 문화 교류로 풍성해져 ‘다채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화합과 평화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만남의 문화를 증진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2021년 제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



'므네 므네 트켈', 그리고 '파르신' 벨사차르 왕의 연회 (Belshazzar's Feast) 1638

렘브란트 반 라인(Rembrandt van Rijn) 캔버스에 유화, 167.6 cm × 209.2 cm, 내셔널갤러리, 런던, 영국

고은영 베로니카(미술품 복원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어둠 속의 빛을 배경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친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벨사차르의 연회”에서 권력자의 오만과 위악을 다니엘서의 이야기로 묘사합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신성한 유물로 그의 왕국을 채우고 그의 아들 벨사차르는 훔친 금잔으로 왕궁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바빌론 왕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벨사차르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손이 벽에 “MENE, MENE, TEKEL, UPHARSIN” (“므네 므네 트켈, 파르신”)이라는 글씨를 쓰는 것을 봅니다. (렘브란트는 히브리어 문자를 잘못 표기하여 여러 열로 배열했습니다.)

그림의 벨사차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혹한 눈으로 글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물을 쏟기도 합니다. 성경은 벨사차르가 너무 놀라 ‘허리의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쳤다.’라고 상세히 씁니다. 그는 큰 상을 걸고 이 글을 해석할 이를 찾지만 아무도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지식과 통찰력을 인정받았던 다니엘이 불러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하느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므네’는 하느님께서 임금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이며 “트켈”은 임금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이고 “프레스(파르신)’는 임금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이민족에

게 주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벨사차르의 반응은 무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그날 밤 살해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메디아의 다리우스가 왕국을 차지합니다.

벨사차르는 왕관을 쓰고 금은 장식을 몸에 돌렸지만 그의 마지막 밤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의 중심인 왕이 징표를 깨닫지 못하고 예언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자 ‘무게가 모자란’ 그를 하느님은 주실 때처럼 엄중히 거두어 가십니다.

“하느님은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치시기도 하시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다니 2:21)”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구원을 청하는 가난한 이들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



경청과 소통의 언어, ‘침묵’ - 암브로시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안식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는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명료하게 정의한다.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소통의 도구’인 ‘언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개별적으론 한낱 ‘나약한 존재자’에 불과한 인간은 무리를 지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한병철, 『타자의 추방』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선 이유를 전제로 국가건 사회건 인간이 이룩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진다면, 이는 ‘경청’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딱 그렇다. 국민의 85퍼센트 이상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발표). 하지만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니 듣고서도 외면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정부, 서로의 생각은 갈라지고 목소리는 높아만 간다. 경청과 대화는 사라지고 우격다짐은 더해갈 뿐이다. 뜻은 모이지 않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로마 10,17)고 했다. 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바닥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언어는 ‘마음의 전달’이고, 경청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고 자세이다. 그리고 ‘침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진심어린 마음’이다.

성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34-397)는 밀라노의 집정관이였다. 그는 밀라노의 주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을 때, 밀라노 교우들의 적극적인 염원에 힘입어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교로 추대되었다. 망설임 끝에, 당시 황제였던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권고에 따라 세례를 받고 이틀 뒤 결국 주교품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례조차 받지 않았던 암브로시우스가 갑자기 사제단과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 되니 참으로 막막했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침묵 안의 경청이었다. 수많은 호소와 반대의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닫고 말을 삼간 것이 아니라, 침묵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에 그는 밀라노 교구를 주님의 교회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나는 법정과 관직에서 남여와 사제직을 맡게 되었는데, 나 자신이 배우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도 전에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배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쳐야만 합니다. ... 다른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겠습니까? ... 침묵할 줄 아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성직자의 의무』 De officiis ministrorum, 1,4-5) 🌿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늘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정하신 이번 창조 시기 주제는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입니다.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7항 참조)입니다.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계 기상 기구(WMO)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기상이 보건, 생태계, 경제, 농업, 에너지, 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빨리 대폭 줄여야 하는 시급성을 보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이 공동의 집을 부당하게 다룬 결과는(『찬미 받으소서』, 53항 참조) 우리에게 생존에 직결된 ‘생태적 빛’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의 집이 치유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생활 양식의 변화, 공공 정책의 변화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진 ‘생태적 빛’을 깊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한 ‘생태적 회개’는 나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며, 나와 피조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조화로운 생활 양식의 모범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녔던 피조물에 대한 ‘경건함’입니다. 이는 피조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경탄의 능력’입니다. 이 태도는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올해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국제 연합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정상 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급변하는 기후 위기를 올바르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파리 기후 협약(COP21)을 거스르는 화석 연료 시설의 확대를 억제하고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피조물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태적 빛’을 후대에 남기게 될 것 입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속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기도하는 이 창조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심 어린 생태적 회개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도록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공동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강물처럼 이 세상에 끊임없이 흐르게 합시다. 🌿

2023년 9월 1일

창조 시기를 시작하며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 현 동 아바스



전문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7월 10일(월/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운영위원장인 김 사무총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한 생태계와 먹을거리 지키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별히 가톨릭교회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

- 7.8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 7월 8일(토/18:00) 부산역 광장
- 릴레이 1인시위
 - 7월 7일(금/11:00), 8월 24일(목/10:00, 12:00) 일본영사관 앞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 8월 22일(화/15:00) 일본영사관 앞
 - 8월 24일(목/10:00) 일본영사관 앞
- 핵오염수방류 강행규탄 부산시국집회
 - 8월 24일(목/19:30) 정발장군동상 앞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26부산시민대회>
 - 8월 26일(토/18:30) 부산역 광장 ~ 일본영사관까지 행진



+ 2023 청년사회교리 아카데미 시즌2 개강

정평위 청년분과가 주관하는 청년사회교리 아카데미(시즌2_이제 뭐하지?)를 8월17일, 해운대성당 교육실에서 개강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우동·남천지구 청년을 대상으로 11월 23일까지(15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해운대성당에서 진행합니다.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8월 23일(수/11:00)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전국 정평위 하반기 정기회의가 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개 교구 정평위의 상반기 활동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고 주교회의 정평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워크숍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8월 30일(수/16:00) YWCA 3층 강당에서 워크숍을 가지고 지난 2021년 4월 22일부터 2년여간 부산지역의 시민사회가 진행해 온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이 8월 17일 각하된 판결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성리 평화 미사'**

일 시: 2023년 9월 25일(월) 14:00 미사
 장 소: 소성리회관 앞 천주교 상황실
 출 발: 가톨릭센터 09:50까지 집결(10:00~18:30)

참 가 비: 무료(점심 각자 해결)
 신청 마감: 9월 15일까지 선착순
 문 의: 정의평화위원회 (051-465-9508)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6일 ~ 8월 16일)

강운재(2) 강인순(2) 강정웅신부(2) 고은영(2) 권성일
 (2) 권용대(2) 권중희(3) 김경란(2) 김경석(2) 김경숙
 (2) 김경희 김광숙(2) 김서현(2) 김선영(2) 김인한신
 부(2) 김종경(2) 김진우신부 김진호신부(2) 김천일신
 부 김홍기(2) 나경문(2) 다운(2) 류창훈신부(2) 류형
 숙(2) 밀알사제단(2) 맹정은(2) 박경덕(2) 박위옥(2)
 박종민신부(2) 박준철(2) 법무법인민심(2) 법무법인
 부산(2) 변지혜(2) 서경혜(2) 손석호(2) 송석희(2) 신
 정금(2) 심서경(2) 심재영(2) 아리(2) 우무섭(2) 유상
 우신부(2) 유한이(2) 윤영훈(2) 윤용웅(2) 이미영(2)
 이봉룡(2) 이상애(2) 이소라(2) 이순옥 이영복(2) 이
 윤호(2) 이정기(2) 이형규신부(2) 장원창(2) 전나미
 (2) 전동묵신부(2) 전윤희(2) 전태일(2) 정성근 정성
 호신부(2) 정중태(2) 정혜원(2) 정호신부(2) 조계환
 (2) 조동기(2) 조동성신부(2) 조영심(2) 조영재(2) 주
 님의축복을(2) 지선숙(2) 차광준신부(2) 최상국(2)
 최수련(2) 최우인(2) 최재경(2) 최혁신부(2) 하민진
 (2) 허채현 황수엽(2) 황진(2) 이명 **|원고 후원|** 강인
 구신부 김현신부 이인경 차광준신부

2023년 9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관동대학살 백년,
X
**역사왜곡과
진실화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타고
약탈한다



2023.09.11. (월) 저녁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김중수 목사
 1923한일계일식민연대 대표
 간토박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051-465-9508 (미사와 무료강의)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업비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이나 신규로 후원하신 분은 꼭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 2023 사회교리학교(입문강좌) |

‘사회교리학교’에 초대합니다.

사회교리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신앙인으로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있는 인간을 돕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째가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을 교회의 봉사 직무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67, 69항 참조)

- 일 시 2023. 10. 11 ~ 11. 29 (8주간 수요일) 오후 7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6만원 (할인대상 : 정평위 후원인, 수도자 : 4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신 청 마 감 10월 5일까지
- 신청하러 가기 <https://url.kr/wa47xt>
- 문 의 051-465-9508 / busanjustice@naver.com



| 날 짜 | 내 용 | 강 사 |
|---------|----------------------------|--------------------|
| 10월 11일 | 사회교리란 무엇인가? | 이군태 신부(김해성당) |
| 10월 18일 | 문헌 안에서의 사회교리(제2차 바티칸공의회 등) | 유상우 신부(우정성당) |
| 10월 25일 |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회교리 교부들과 사회교리 | 김현 신부(안식년) |
| 11월 01일 | 복음적 정치참여 | 성염 대사(전 주교황청) |
| 11월 08일 | 경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조광우 신부(노동사목) |
| 11월 15일 | 사회교리 관점에서 본 노동 | 차광준 신부(울산대리구 사회사목) |
| 11월 22일 | 생태신학과 영성생활 | 송영민 신부(대구가톨릭대) |
| 11월 29일 | 교회와 가정 | 김진호 신부(해운대성당) |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cs.co.kr